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4월16일(금)  
(윤력 3월 5일)  
Пятница  
16 апреля 2021г.  
№ 15 (1193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4월18일은 세계 문화 유적 및 기념물의 날이다.  
▲ 코르사코브시 방향의 언덕. 사할린 희생동포 기념위령탑.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사할린주, 사회적 지원에 있어 러시아 선두 지역 중 하나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안톤 코짜코브는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사할린주에서 사회적 부문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자녀를 둔 가정, 자원봉사 개발, 고령층 지원, 빈곤 극복의 지원 정책 부분에서 사할린주의 시도에 관심이 간다. 연방 차원에서 이런 시책이 요구된다. 우리는 연방 차원에서 시책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이 추천하는 해결 방식을 분석하겠다."고 안톤 코짜코브가 언급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한 해 동안 자녀를 둔 5만1천 가구가 지원책의 혜택을 받았다.

이를 목적으로 주 예산에서 77억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사할린주에서 다자녀 가구의 수가 6% 증가하여 이 수치로 사할린주는 극동지역에서 선두에 서있고, 전국에서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 현대적 디지털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0년에 사회적 지원책의 배당 과정이 개선될 예정인 가운데 원칙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과 피드백의 소통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프로그램들과 우리의 전체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신

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평가에 의한 것이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사할린주는 연방 혜택에서 추가로 3세-7세 아동을 위해 주 예산에서 추가 지급을 실시했다. 사할린의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월 지원금은 자녀 1인당 8,650-17,300루블리다. '사할린 장수' 기획은 3년째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에 55세 이상의 연령층 16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사할린 주민 통합 카드'로 영화관과 극장을 비롯해 스포츠 시설과 체육관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카드로 매달 사회적 지출이 계산되고 식품과 약품, 생필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65세 배려' 지역 기획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년층을 찾아내는 것이 주요 업무다.

지역 행정부 대표, 경찰, 사회적 및 의료계 직원들과 자원봉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 사할린 전 지역에서 정보를수집해 연금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방면의 모든 사업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실행되고 있는 '주민 통계학' 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 리마렌코 주지사, 국가두마 카를로브 의원과 만나

지난 12일(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게오르기 카를로브 국가두마 의원과 만나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차량도로 공사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해에 사할린주 내 전반적인 정비정돈을 실시했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디지털 지도도 모든 쓰레기 매립지를 표시해 몇 달 만에 쓰레기를 치웠다. 현재 유사한 방법으로 손상된 도로를 디지털 지도에 표시하고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여름 내내 소매를 걷어 붙이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가 말했다.

올해 사할린 도로 공사 명목으로 2020년의 2억 5천만 루블리보다 6배나 많은 15억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자금 증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 오하 구간 도로가 연방도로로 이전된 데 있다.

'주민들을 위해 시급한 주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할린의 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만남에서 겨울이 지난 후 도로 상태에 대해 자주 불만을 나타냈다.'고 게오르기 카를로브 의원이 강조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 언급한 운송 문제로서 지난해 흠스크 항구 재건설로 연방 예산의 23억 루블리 배당에 대한 협약을 이뤄냈다. 이 자금은 부두 벽 복원과 준설작업에 투입하여 2년 안에 항구 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그때는 사할린과 대륙의 콤소몰스크나 아무레간 운송 선박으로 건조되고 있는 새로운 여객선들이 정박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한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 단신

### 위탈리 고밀렙스키, 사할린 주두마 부의장으로 선출

지난 15일(목)사할린 주두마 회의에서 새 부의장으로 위탈리 고밀렙스키 의원이 다수가결(찬표 22, 반대표 1, 무효표 1)로 선출되었다. 전에 주두마 부의장으로 활동했던 알렉산드르 이와쇼브는 코르사코프 시장으로 선출되어 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78세의 위탈리 고밀렙스키 부의장은 정부기관 지도자로서 큰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4명의 주지사 아래서 부지사직을 역임했고, 주두마 의원으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 사할린주, <토요 청소의 날>에 주민 참여 촉구

러시아에서 전통적으로 4월을 청소의 달로 발표한다. 매주 토요일 공공서비스회사와 시민들이 기관, 아파트 단지 마당 청소를 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비롯해 주내 여러 구역에서도 4월 17일과 4월 24일을 청소의 날로 정해 대청소를 할 예정이다. 청소 활동은 모든 건물의 반경 10미터 구역을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체에서는 청소를 위한 장비를 준비해주며 또한 매주 금요일에도 <깨끗한 금요일>을 실시한다. 이날 개인 및 생활 고형 폐기물을 수집장에서 무료로 받으며, 토요 청소의 날에도 고형 폐기물을 무료로 폐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지사는 토요 청소의 날에 시민들에게 함께 나서달라는 요청을 했다.

### 한민족 전통 그림에 관한 경시대회 개최

사할린국립대학교(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임 엘비라)와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에 관한 경시대회(온라인 및 오프라인)가 4월 16-17일에 개최된다.

주정부 지원 <세대의 연결, 전통의 계승>기획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경시대회의 주제는 <조선시대의 전통 회화(민화)>다. 16일에 개막식이 열리고, 17일에는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021년 4월 14일 사할린주 코로나19 상황

2021년 4월 14일(수)에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23명으로 밝혀졌고, 10명은 퇴원했다.

4월 14일 기준 사할린주에 총확진자는 2만2,239명, 퇴원은 2만1,856명, 사망자 42명, 341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1차 백신 접종은 4만8,701명(그중 2차 단계 접종자는 3만4,755명), 백신 접종 예약자는 3만4,538명이라고 주지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밝혔다.

# 평화통일을 위해 러시아 동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란 기구의 자문위원들이 러시아에서도 이미 약 20년간 활동하고 있다. 민주평통이 사할린에서 주최한 가장 대규모 행사는 3·1절 100주년 기념행사(2019년 2월 20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차브리'영화관에서 진행)다. 현재 민주평통 고문으로는 사할린 한인사회계 대표 6명이 활동하고 있다. 본사 배순신 기사는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의회 회장인 황돈연(55) 회장을 소개하고 자신의 소개를 부탁드렸다.

**- 우선 회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무엇을 전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계속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때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생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생물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삼성종합기술원이라는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미래기술실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삼성이 집중해서 개발해야 할 기술이 무엇인지 연구를 했고, 나중에는 의료기기연구팀에서 피를 뽑지 않고 헤모글로빈과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 회장님께서 러시아에 오신 동기과 극동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 학생시절부터 저는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소련병사 이반'이라는 책을 읽고 나중에 러시아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을 마치고 난 후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하기 전인 1990년에 러시아에 유학을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생물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1994년에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원동문화개발기구는 단체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함께 일을 하자고 초청을 해서 2004년 12월에 블라디보스톡에 왔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국제학교 설립을 준비했고 나중에 학교의 교감으로 일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교장으로 10년간 일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에서 잠시 한국어를 가르쳤고 그 후에 블라디보스톡 경제 및 서비스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 협의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 생각하시기에 러시아에 사는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2004년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17년째 블라디보스톡에서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박물관도 많이 있고 극장에서 연주회도 자주 하고 발레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차를 타고 30분 정도만 가면 바닷가가 있어서 여름에는 해변을 거닐고 수영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단점은 겨울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배달을 해주지만 한국 만큼 배달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좀 불편한 점입니다.

**- 언제부터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지요?**

- 저는 17기에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 협의회 간사로 일했고 18기에는 자문위원으로 일하다가 19기가 시작되는 2019년 9월1일부터

블라디보스톡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기의 임기가 8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자문위원님과 고문님들과 함께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 블라디보스톡 협의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들과 고문들이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느 지역들을 대표하고 계십니까?**

-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 협의회는 현재 19명의 자문위원과 27명의 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살펴보면 우랄산맥 동쪽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해주(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아르쎬), 하바롭스크, 사할린, 캄차트카, 이르쿠츠크, 마가단, 튜멘 등에서 여러 자문위원님과 고문님들이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시고 블라디보스톡협의회 앞으로 기획들과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관입니다. 국내외의 통일 여론을 수집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 협의회는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평화 통일 강연회, 문화페스티벌, 통일기원 음악회, 청년 토크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통일백일장을 개최하였고, 주블라디보스톡한국총영사관 오성환 총영사님을 감사로 모시고 온라인 통일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3월 20일에 메가 호텔에서 최재형 예술학교 교장이신 김 발레리아 씨를 초청해서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한 국제 그림 경연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5월에

우수리스크에서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좋아지면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 간담회도 하고자 합니다.

**-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현재 연세대학교 4학년 다니다가 휴학 중이고 딸은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이들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명언은?**

- 제가 좋아하는 명언은 톨스토이의 말인데 '이세상에서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용서이다.'입니다.

**- 좋아하시는 계절은?**

-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을 좋아합니다.

**- 좋아하시는 성품은?**

-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 좋아하시는 책은?**

- 저는 소설도 좋아하고 인문과학서적도 좋아합니다. 최근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 좋아하십니까?**

- 자유시간에는 음악을 듣고 가끔씩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몇 분과 함께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함께 책을 읽고 있습니다.

**-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때 동북아의 긴장관계가 사라지고 주변 국가들도 함께 발전하고 번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민주평통의 활동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일을 위한 활동 모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이모저모

###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키시즌 마감

4월 11일(일)에 올해의 가장 빛나는 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2021년 뜨거운 눈 축제'가 '고르니워즈두흐' 스포츠 관광 종합 단지에서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스키시즌이 종료되었다. 스키어들은 속도와 기술, 화려한 스키 종목을 선보이며 경쟁했다. 주최 측은 축제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상상으로 창의적 기술을 선보이도록 스노우보드와 스키 애호가들을 제한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조건은 카니발 의상을 착용해야 했다.

"오늘 여기, 고르니워즈두흐의 가장 충성스런 친구들이 모였다. 올 겨울 스키시즌은 아주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시즌을 마감하는 것이 조금은 아쉽다.

산악 스키단지에서는 30개 이상의 대규모 행사와 지역적, 러시아와 국제적 20개의 경기가 열렸으며 최근에 최고의 알파인 스키어들이 참가한 극동컵 알파인 스키 경기가 치러졌고, 고르니워즈두흐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스노우보드 선수권대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고객인 여러분이다. 고르니워즈두흐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올 시즌에 처음으로 20만 명이 넘는 스키어들이 스키단지를 방문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적인 일을 성취했다. 다음 겨울 시즌에도 이 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다." 고 사할린주 스포츠부

장관 세르게이 부렌코프가 환영 인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퀴즈대회, 많은 선물, 준비운동 댄스, 행사의 핵심인 카니발 복장 경연과 축제의 열기가 넘치는 카니발 스키 하강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최 측은 우수 복장 3명을 선정했는데 우승자는 백설공주, 포이즌 아이비, 닭다리 오두막 복장이 차지했다. 이들에게 부상으로 2021년-2022년 시즌 스키 패스권을 수여했으며, 배트맨 복장은 인기상을 받았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крыли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11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одно из самых ярких событий в году.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ошел "Жаркий снежный карнавал 2021". Таким образом,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точка в очередном горнолыжном сезон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Он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не в скорости и технике, а в том, чей образ окажется самым ярким и оригинальным. Организаторы не стали определять тематику карнавала и не ограничивали любителей горных лыж и сноуборда в фантазии для создания образа. Есть только одно условие — на участнике должен быть минимум одежды.

— Я вижу, что здесь сегодня собрались самые преданные друзья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Конечно, повод у нас немного грустный — мы закрываем снежный сезон, но он прошел очень активно, — выступил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

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 На горнолыжном комплексе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проведено больше 30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более 20 соревновани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Буквально недавно прошел Far East Cup с участием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главных звезд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инял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сноуборду.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вы — главные люди, ради которых работае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этом году вы совершили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потому что в этом сезоне впервые более 2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сетили горнолыжный комплекс. Поэтому ждём вас на горе следующей зимой!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ждала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икторина, много подарков, танцевальная разминка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конкурс костюмов и карнавальная жаркий спуск.

Организаторы определили три лучших костюма.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Белоснежка, Ядовитый плющ и Избушка на куриных ножках. Они получили главные призы — сезонные ски-пасс на сезон 2021-2022. А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достался Бэтмен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 음악 디탄트(단답시험)에 사할린 주민들 참가

4월 11일 '음악 전반 디탄트(단답시험)' 음악 듣기와 음악 교양을 시험하는 국제적 계몽 행사가 열렸다. 사할린주도 이 행사에 처음으로 합류해 개최했다.

(8면에 계속)

# 주 한인청년회, 유치원생들에게 기쁨을 안겨



4월 9일 사할린주 한인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의 회원들이 아니와 시 <스카스카(동화)>유치원을 찾아 <코리아와 인사, 또는 한인은 누구인가?>란 프로그램을 펼쳤다. 아이들에게 한민족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공예교실, 한복 입기 등을 통해 문화체험도 해보았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만족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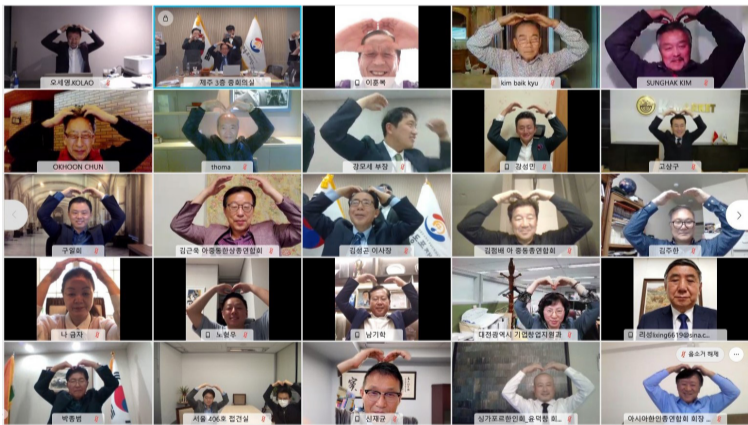
율리아 소볼레와 유치원장은 주회 측에 감사사를 하고 이 행사가 장기간 협력의 초점으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인청년회는 이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청년 위한 사업, 학교 학생 위한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한인청년회 제공)

# 한상(韓商) 비즈니스 교류의 장, '세계한상대회' 2022년도에는 울산서 개최

## 4.12(월), 제38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2022년도 대회 개최지 등 결정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4월 12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18개국 40명이 참가한 제38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울산으로 확정했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들은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군산시)의 유치 계획발표를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통한 제반 사항 점검 및 사전 안전자료로 배포된 현장실사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내년도 개최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다수 운영위원의 참가가 용이하고 현지 단체와 협력 가능한 중국 북경에서 제4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가 국가급 비즈니스 컨벤션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많은 한상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향후에는 해외에서도 대회가 개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참여하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금년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대회 주요 프로그램으로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 리더&한상포럼, ▲한상CEO 네트워킹, ▲기업IR, 일대일비즈니스미팅, 세미나, 투자유치설명회 등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한상넷(www.hansang.net)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위기 맞은 '사할린 한글학교' 회생 운동 전개

##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 주축 후원회 결성

27년 역사를 지닌 사할린 한글교육협회(한국)가 매년 2차례 시행하던 사할린 한글학교 한국 문화체험 연수가 코로나로 중단되어 있다. 주 원인은 경제적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사할린 한글학교 한국 문화체험 연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27년 동안 사할린에 한국어 교육과 차세대들의 모국 방문을 후원해왔다. 이는 임태식 사할린 한국어교육협회장의 헌신으로 이어져왔는데, 코로나로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최근 아리랑학회 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사할린 한국어 교육을 도와줄 개인이나 단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서울 혜화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임 회장은 사할린의 한국어 교육 문제에 열정을 품게 된 것은 가족사와 연결된다. 바로 사할린에 거주하는 고종사촌을 만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을 때 사할린 공식 한글학교 제9동양어문학교를 방문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임 회장의 회고 속에는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걱정이 절실하게 전해졌다.

"한글 교육 수업 장면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국어 교육이 재개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태도만큼은 정말 열성적이었어요. 그 흔한 스티커도 없어서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색종이로 별을 오려서 노트에 붙여주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스티커를 당장 한 보따리 보냈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한국어 교사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고 귀국 후 친분이 있는 각 학교의 교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할린 동포를 위한 한복 700여 벌을 모아 수선해서 보내기도 했다. 사할린 내 유치원 3곳에 한국어반을 설립해 운영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할린 현지에선 한국어를 가르치는 상급 학교가 많지 않아서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어 학교 설립이 시급하지만 당장은 여력이 없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맥을 이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이 한국말을 잊지 않게만 도와달라고 하고 있죠."

임 회장은 비영리단체인 사할린 한국어교육협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후원자를 찾아 나섰다.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 단체에는 후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데 사할린 문제에는 관심있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불행한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할린 한인의 후손들이 우리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설명을 했지만 협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사람(동지)을 찾는 일도, 후원자를 모으는 일도 쉽지는 않다고 했다.

26년 동안 이어져온 후원사업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후원자들이 노년을 맞이하여 양로원이나 병원생활을 하게 된 탓이다. 그 결과 후원자는 3분지 1로 줄어들었고, 여기에 코로나로 해서 더욱 힘들어졌다. 차기 한국어 교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현지 한글 교육을 맡은 교사들의 부족 현상이 있게 되었다. 26년 전에 책정된 차비 정도의 월급과 지원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협소해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이 교육사업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매년 '사할린 아리랑제'를 주관하는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논의를 하게 되었다. 최근 이에 동조하는 아리랑학회, 국악신문 등이 동조하고 나섰다. 지난 3월 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 정은하 회장은 최근 모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끌려간 조선인 중 경상도 출신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을 잊지 않고 아리랑까지 부르는 동포들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우리말을 잊어버리면 아리랑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차 후원회 결성에 이어 제2차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측면 지원해 온 공노원 부회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류바람을 타고 불어온 한국의 인기는 사할린에도 주기적으로 한국 문화가 유포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할린에는 남북한 문화가 각각 공존해 있었지만 냉전 이념 속에서도 한국 풍습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어서 '사할린국'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한글 교육이 사라지면

다음 세대는 러시아 문화에 동화되어 정체성 문제에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한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임 회장은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본회의 설립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후원회원으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리랑연합회 기미양 총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리랑 보존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국 아리랑전승단체 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악신문 전직원의 관심 표명에 대해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공노원 부회장의 사할린 현지 공개수업 참관과 지도하는 기간에 후원을 해 준 나눔성형외과 (원장 노승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임태식 회장 메시지

러시아 사할린!

일제강점기 통한의 상흔이 1,2세대에 머물지 않고 3,4세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침식되어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라 잃어 천대받던 4만 3천여 우리 동포들은 광복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반세기를 부당한 영어의 몸으로 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핍박과 허기로 고향을 그리다가 세상을 떠난 수많은 우리 동포들도 있습니다.

1990년 한·러 수교로 꿈에 그리던 모국을 왕래하게 되었지만 우리말과 글을 쓰던 1세대들의 영주귀국과 타계는 2세대들의 모국어 사용을 중단하게 했고 3,4세대들의 한국어 교육 부재는 이제 문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63년 한국어 교육 폐지 이후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아야만 해서, 3세대가 모이면 중간에 있는 2세가 1세대와 3세의 소통을 위해 통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어 교육이 재개되었지만 1963년 이전 양성한 한국어 교사는 영주귀국을 하였거나 고령으로 타계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사할린 국립대학에서 양성한 300여명의 한국어 교사는 열악한 보수체제로 거의 전원이 한국어 교사임용을 기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할린에는 정규교육을 이수한 한국어 교사는 전무한 편입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사양성과 연수, 교재·교구확충 등에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는 아직은 어렵지만 사할린에 한글학교가 설립되고 우리 동포가 우리말과 한글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일.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임태식 올림

사단법인 아리랑연합회 기미양 사무총장은 "매년 2차례 모국방문을 하는 학생들의 답사일정을 각 지역 지자체가 주최하는 아리랑축제와 연계시켜 모국의 정서와 문화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후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 후원단체

####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

영남아리랑보존회(정은하), 아리랑무용단(김채원), 서울아리랑보존회(유명옥), 영남민요연구회(배경숙), 구미아리랑보존회(임규익), 제주도아리랑보존회(강소빈), 울릉도아리랑보존회(황효숙), 제주아리랑연구회(장경숙), 연변아리랑보존회(김은희), 가평아리랑보존회(최승녀), 군포아리랑보존회(한영숙), 진도아리랑보존회(박숙영), 예천도속아리랑보존회(최수인), 춘천의병아리랑보존회(기연옥), 부산동래아리랑보존회(김희은), 왕십리아리랑보존회(이혜술), 서귀포아리랑보존회(유재희), 연변아리랑보존회(김은희), 한국민요연구원(진미애)

#### 러시아아리랑 본부

본부장(공노원), 하바롭스크아리랑 지부(김석복) 사할린아리랑제추진단 홍보대사(스텝핀 블라디미르) 아리랑학회 김연감, 기미양, 이정하, 이강연, 이정훈, 김니은, 지철호, 김미숙

국악신문 (김지연, 김하나, 김하늘)

나눔성형외과의원(노승만), 나블레베이커리 카페(지윤주)

(본 기사 아리랑연합회 기미양 사무총장 제공)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9 апреля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ого сада "Сказка" в г. Анива встречали гостей. Члены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ехали к ним с программой "Знакомство с Кореей, или кто такие корейцы". Ребята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примерить ханбок 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на память. Заведующий МБДОУ "Детский сад №8 "Сказка" Юлия Соболев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выразила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нет залогом долгого и плодотво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уже хорошо известна своими делами в диаспоре: ведет волонтер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ре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работает со школьниками, а в этот раз они с радостью пообщались с дошколятами.

Наш корр.

## Южнокорейцы потребовали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купить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Побочные эффекты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емой в Южной Корее AstraZeneca, а также неожиданно возникшие проблемы с обеспечением населения препаратами для вакцинации заставляю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срочно обдумывать различные альтернативы для прививочной кампании против COVID-19. При этом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чень громко слышны голоса тех, кто выступают в пользу закупк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вакцины "Спутник-V".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пока пассивно реагирует на эти предложения, что нервирует корейскую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сеобщая вакцинация от COVID-19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лась 26 февраля, однако проходит она выборочно, пока только для определенн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и достаточно медленно. Идет вакцинация только первыми дозами препаратов и привилось менее трех процентов населения.

Вдобавок к этому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озникли проблемы с поставками в Корею уже закупленных объемов. Кроме того,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парата AstraZeneca, которым в Южной Корее сейчас вакцинирует большинство людей, создали новые проблемы для всей кампании. После некоторых колебаний власти РК 11 апреля заявили, что н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у вакцину для людей моложе 30 лет, признав у нее наличие достаточно серьезных побочных эффектов.

Как отмечают СМИ и эксперты, все это делает невыполнимыми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пла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достигнуть эффекта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к ноябрю текущего года и начать прививать 52-миллионное население страны с действительной охватом с июня-июля. Подобная ситуация заставила корейцев срочно искать альтернативы, и здесь явно наметился раскол по тому, как к проблеме подходят центральные власт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что требует сделать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а также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и СМИ.

В центре жарких споров оказался российский препарат "Спутник-V". Если народ требует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ризнать, закупить и начать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ть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которая одобрена уже в десятках стран в самых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планеты, 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настаивает на продолжен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уже одобренных Сеулом западных препаратов, отмахиваясь от призывов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 отделиваясь расплывчатыми заявлениями.

Нынешняя позиц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а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едавно в ответ на прямой вопрос по "Спутнику-V", заключае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Власти осведомлены о проблемах с имеющимися и одобренными в Корее вакцинами, думают о возможных вариантах выхода из ситуации, включая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какой-то перспективе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епара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 российского. Однако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планов закупки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парата нет, этот вопрос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не находится на стадии активного официа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При этом,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РГ", еще в январе этого года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получили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по "Спутнику-V" со всеми научным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и и медицинскими разъяснениями.

Но вот у обычных корейцев совсем иная точка зрения на то, что надо делать. Чтобы понять, что каково отношение обычных корейцев к "Спутнику-V", достаточно открыть раздел "Комментарии читателей" практически к любой статье в СМИ, где затрагивается проблема нехватки вакцины в Корее и упоминается российский препарат. Мы обобщили наиболее типичные комментарии корейски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 этой проблеме, которые появились в нескольких последних заметках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азетах "Сега Ильбо" и "Чосон Ильбо".

В статьях говорилось о проблемах с вакцинацией в Корее и что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другие препараты, например российский или китайский. Если обобщать, то корейцы призывают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закупить "Спутник-V", считая при это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идет на это, оглядываясь на СШ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 китайским препаратам сильно недоверие.

"Давайте и мы будем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Спутником! Он в 100 раз лучше, чем AstraZeneca!" – призывает читатель под псевдонимом hang.

"Мы так сильно отстаем по темпам вакцинации и до сих пор не берем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Прочему? Сколько можно оглядываться на США?!" – спрашивает Dmsz.

"Спутник-V – последняя надежда! Россия еще со времен СССР вела серьез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сфере

микробиологии, потому и вакцине, у которой эффект 93 процента, доверять можно! Корея должна закупить "Спутник"! – подчеркивает wuk0.

"Да сколько можно слышать от чиновников об "осторожном подходе"! Сами не смогли создать и теперь оглядываемся еще на кого-то! В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й науке Россия – № 1 в мире, а Корея – № 100! Давайте быстрее российский препарат закупать!" – вторит Jinh.

"Немедленно вводите "Спутник"! AstraZeneca я прививаться боюсь. У "Спутника" нет серьезных побочных эффектов, а AstraZeneca какие-то болезни серьезные провоцирует", – говорит kms0.

"Чиновники,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у нас же в стране даже производят, а мы все ее не используем?! Люди умирают, а вы все оглядываетесь на США, сколько можно?!" – вопрошает wski.

"Корона уже надоела, я хочу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российской вакциной...!", – резюмирует q1cj. "Да сколько можно уже! Все говорят, что российская вакцина лучше "Астры", а у нас чиновники только и повторяют: "не планируем внедрять российский препарат!" Пора меня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огда!!!" – злится imwh. "Хоть сейчас не упускайте шанс, побыстрее закупайте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кажите свои лидерские качества! Не разочаровывайте народ!" – призывает tax5. "AstraZeneca дорогая, сложно хранить, а "Спутник" – дешевле и хранить гораздо проще...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если не хотите, чтобы проблема стала еще больше, то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начинайте переговоры о закупке российской вакцины...!" – глас.

Многие корейцы считают,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ведет так пассивн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путнику-V" из-з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соображений,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не самые лучш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ША и РФ. Трудно сказать, насколько э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но подобная точка зр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а.

Эксперты Южной Кореи же указывают, что "Спутник-V"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от препарат, который доказал свое качество. "Давайте я прямо вам скажу свою точку зрения, чтобы подвести итог нашему разговору: я за то, чтобы закупать и использовать "Спутник-V", а политика – это отнюдь не тот фактор, который стоит тут учитывать", – заявил накануне в ходе ток-шоу по новостному радиоканалу YTNRadio корейский эксперт.

"Если отбросить всю политику и смотреть чист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ауки, то "Спутник" получил признание, в том числе благодаря публикации объективных данных в известном журнале. Не случайно в наш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говоря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 этом препарате как об альтернативе.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немедленно надо вводить вакцину РФ, но вполне стои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план В" или "план С", – отметил профессор сеульской клиник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Ким У Чжу. Эксперт признал, что его коллеги также указывают именно на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В какой-то степен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можно понять. Когда еще по поводу "Спутника-V" в зарубежных кругах хватало сомнений, то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поторопился и сделал ставку на западные препараты, заключив контракты, объема которых хватит для вакцинирования 79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при 52-миллионном населении Кореи. Если сейчас начинать закупать "Спутник-V", то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вопросы: "А зачем торопилис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бюджетные деньги выбросили?! А что делать с западными вакцинами?". Наверное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Южная Корея пытается "выжать" максимум их тех препаратов, которые уже официально одобрила и оплатила.

Впрочем, возможно, что какие-то подвижки все-таки начались и в позиции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ула. "Прошу вас приня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усилия для ускорения темпов вакцинации и скорейшего внедрения новых препаратов, – заявил вчера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на совещании, где обсуждался процесс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 Пожалуйста, активно работайте вопрос об одобрении и внедрении других препаратов, которые доказали свою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 призвал он подчиненных.

Да, слов "Спутник-V" или "Россия" Мун Чжэ Ин прямо не сказал, но, судя по настроениям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призывам, которые слышны от обычных людей и экспертов, российский препарат теперь главный кандидат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ореи в вакцинации, если власти РК все же смогут переступить через себя и согласятся объективно изучить имеющиеся в мире альтернативы западным вакцина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КНДР отметила девятую годовщину руководства Ким Чен Ына

Исполнилось 9 лет с момента «избрания товарища Ким Чен Ына лидером нашей партии и нации», – говорится в редакционной стать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11 апреля центральн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газетой «Нодон синмун». В ней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Ким Чен Ын «поставил интересы людей в качестве первоочередной задачи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и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В отдельной статье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заслугах лидера страны в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андемии COVID-19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регионов после прошлогоднего наводнения. Ким Чен Ын назначен первым секретарём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11 апреля 2012 года, а через 2 дня –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тета обороны КНДР. На партийном съезде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он был утверждён в качестве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ТПК. По случаю годовщины в КНДР не проводилось никаких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Россия готова содействовать диалог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 США и РК

Россия готова содействовать диалог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 США и РК. Об этом заявил директор Перв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МИД России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выступая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Стратегия укреп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8 апреля в посольстве КНДР в Москве.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неизбежные трудности, дух диалог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гиональными державами обязательно в конечном счёте восторжествует, и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мы готовы и будем этому всяческ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 сказал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Как сообщается, участник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заявили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ывода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а уровен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и Пусане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работа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й

Согласно новым правилам, которые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12 апрел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провинцию Кёнгидо, города Сеул и Инчхон, а также в городе Пусане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работа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й – баров и ночных клубов.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тренажёрные залы, караоке, крупные супермаркеты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до 22 часов, но в случае ухудшени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ремя их работы может быть сокращено на один час. Штраф за нарушение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в помещениях и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составит для физических лиц 100 тыс. вон (89 долларов), а дл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не соблюдающих санитарные правила – до 1,5 млн вон (1.340 долларов). Действие второго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и 1,5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продлится до 2 мая. Действует также запрет на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 В Сеуле могут быть введены собственны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В Сеуле могут быть введены собственны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призванные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негатив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пандемии COVID-19 на малый бизнес. Об этом заявил новый мэр Сеула О Сэ Хун, выступая 12 апреля на совещани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торое состоялось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эр столицы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жалобы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мел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а неоправданно строгие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принят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ласти Сеула работают над собственными правилами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которые будут готовы к концу этой недели 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согласование в центр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эр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замены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на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ую и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 отдель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Он предупредил, чт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будут нести более серьёз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новой системы, когда она будет введена в действие.

## За первые 10 дней апреля экспорт РК вырос на 24,8%

В период с 1 по 10 апреля экспортные поставки из РК составили 15 млрд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24,8%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2 апреля в Корейском таможе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Экспорт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увеличился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24,8%, автомобилей – на 29,8%,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продукции – на 52,5%,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 на 35,2%. Доля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составила 20%, а автомобилей – 7%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экспорта. Поставки в Китай выросли на 27,6%, а в США – на 22,6%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 первые 10 дней апреля импорт составил 16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14,8%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Торговый дефицит – 1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RKI)

## КНДР отмечает главный праздник - День солнца

Сегодня КНДР отмечает крупнейш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 День солнца - являющийся поэтическим названием дня рождения основате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Ир Сена. В отличие от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многие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шли в сокращённом варианте, на этот раз Страна чучхе проводит празднества с "докоронавирусным" размахом, подчеркивая, что страна смогла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роникновение в КНДР инфекции.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честь 109-го дня рождения Ким Ир Сена – начались в КНДР еще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15 апреля – даты, на которую приходится сам праздник. Как сообщили официальные СМИ КНДР, что затем подтвердили и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по вс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тали проходи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для подобного дня акции –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онцерты,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ыставки, на которых рассказывают про жизненный путь и достижения осн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роме того, на заводах, фабриках, в рабочих коллективах проходят торжественные собрания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а также митинги. Как отметила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на каждой улице страны отмечают День солнца". В целом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ейчас царит атмосфера всеобщего праздника,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ует все население страны. Судя по подходу властей КНДР, они сделали вс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показать миру, что страна полностью свободна от COVID-19, так как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с участием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нар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ногие акции были отменены из-за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но с тех пор Пхеньян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 что страна, которая быстрее всех закрыла границы, смогла не допустить проникно-

вение инфекции, что и позволяет ей сейчас проводить крупные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 подобными оценками согласны 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ъедин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109-я годовщина дня рождения Ким Ир Сена не является "круглой датой", которым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читают, когда год заканчивается на 0 или 5, а потому признаков особых каких-то акций типа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не отмече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бщий размах идентичен тому, что мы видели в КНДР в обычные годы, то есть до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COVID-19", – заяв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едомстве в ходе брифинга для журналистов.

Отметим, что ранее в интервью ТАСС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хеньяне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столице КНДР стали ослаблять разного рода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ередвижения и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Аналогичные шаги, согласно имеющейся у "РГ" информации, были предприняты и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Синчжжу, Вонсане, Раджине и других.

Учитывая зафиксированные признаки активно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разного рода объектах, имеющих отношение к ракетной и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ам Страны чучхе, некоторые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ожидали, что Пхеньян может пойти на запуск нов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или спуск на воду практически готовой крупн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ракетоносца, но пока никаких признаков подобного н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Мне нечего вам сказать сегодня. Мы не фиксируем признаков какой-либо активности или необычных передвижений в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заявил в ходе брифинга для СМИ глава отдела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Ким Чжун Нак.

(15 апреля 2021 г.)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 В Пусане проходит "Неделя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кино"

С 12 по 18 апрел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усане пройдет "Неделя российског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кин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 совместно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усане и Пусанским фонд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иурочено к 60-летию полета Юрия Гагарина в космос.

По информации газеты "Пусан Ильбо", демонстрация фильмов пройдет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Все киноленты уникальны по своему характеру и до этого никогда не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сь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работах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но про становление первого космонавта мира, его путь к полету в космос и основные этапы

развития советской космонавтики.

Во время "Недели российског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кино" запланирована также целая серия мероприятий с наградами для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ых участников. Победителям конкурсов будут подарены образцы пайков, которыми российские космонавты питаются во время полетов, а также футболки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Юрия Гагарина. Кроме того, 16 апреля школьники Пусанской научной школы и обычные жители второго крупнейшего мегаполиса Южной Коре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 видеосвязи пообщаться с российскими космонавта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12 апреля 2021 г., Сеул, РК)

## Страна станет восьмой в мире производящей собственные сверхзвуковые истребители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а членом «элитной группы» стран, способных производить сверхзвуковые истребители, сообщила CNN, назвав это «значительным достижением».

CNN также отметила, что создание нового истребителя KF-21 положило начало формированию в Южной Корее рынка в размере US\$5,2 миллиарда.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дставила прототип своего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сверхзвукового истребителя, тем самым вступив в эксклюзивный клуб гигантов военной авиации и начав программу в \$5,2 миллиарда, что станет двигателем роста экспорта и создания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Истребители KF-21 должны будут сменить старею-

щий парк военной авиации страны, состоящий из самолетов F-4 и F-5.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что его страна планирует постави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120 самолетов KF-21 к 2032 году и в процессе их масс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будет создано около 100 00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CNN отмечает, что выпуск самолетов KF-21 явля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м достижением для страны, не имеюще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истории самолетостроения».

Ранее Сеул сообщал, что страна станет восьм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 мире, производящим передовые сверхзвуковые истребители, после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завершения испытаний KF-21.

ИА РУСКОР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регионов-лидеров в России по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р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Ф Антон Котяков на встреч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высоко оценил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ого блок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Опы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а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ер поддержки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развития волонтерства, поддержк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еодоления бедности интересен. Такие практики востребованы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Мы проанализируем предлагаемые регионом подходы с тем,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тдельными практиками 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 Антон Котяк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 год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воспользовалась 51 тысяча семей с детьми. На эти цел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7,7 млрд рублей.

Чисто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на островах увеличилось более чем на 6 проц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лидирует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занимает пятое место по стране.

– Мы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м соврем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цифровизации в процессе оказания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В 2021 году процесс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ер соцподдержки буде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ся. Начал действовать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ый подход – не заявительный, а выявительны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мы уделяем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населением. От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услуг зависит доверие жителей к социа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и к нашей работе в целом,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в дополнение к федеральной льготе на детей от 3 до 7 лет ввели доплату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Ежемесячная выплата для малоимущих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составляет от 8 650 до 17 300 рублей на ребенка.

Уже третий год успешно работает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более 160 тысяч жителей в возрасте 55+. По «Единой карте сахалинца» они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ходить в кино и на спектакли, заниматься в спортивных секциях и тренажерных залах. На карту перечисляются ежемесячные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по ней можно со скидкой приобретать продукты, лекарства и бытовые товары.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Забота 65+» призван выявить пожил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посторонней помощи. Команды специалистов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и полиции, медицин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волонтеры –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обирают информацию и оказывают пенсионерам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уги.

Работа по всем эт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Жители села Чехов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йдут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диагностик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ручени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региональному мнздраву на встрече с жителям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сельчане рассказали губернатору о желании комплексно провер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На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й осмотр отправят сахалинцев в возрасте 65+. Они посетя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уже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 Часть холмчан уже прошли обследование в нашем новом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м центре медосмотров. А вот жителей Чехова, к сожалению, там еще не было. Это нужн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исправить, поскольку наши лучши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должны быть доступны всем жителям региона. Тем более,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людях в возрасте от 65 – они нуждаются в особом внимании и заботе,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прос повыш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услуг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тал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с жителям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 в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не хватает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кардиолога, онколога, рентгенолога, узиста и врача приемного отделения. Чтобы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заключило договоры на дальнейше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с 21 сахалинским студентом-медиком и 7 ординаторами.

– Мы можем построить сколько угодно новых зданий, но если мы их не обеспечим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врачами, в них не будет никакой ценности.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м над привлечением кадров, – отмети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Отметим, всег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 ответил более чем на 30 вопросов. Все они взяты в работу. По каждому установлены сроки.

## Центр «Преодоление» впервые организовал выезд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теперь специалисты учреждения будут регулярно обследовать малыш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и дни – 8 и 9 апреля – такие приемы организованы в Поронайск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отрудники центра сформируют график дальнейших поездок.

– Понимаем, с как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порой сталкиваются родители. Зачастую у них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везти ребенка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к профиль-

н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 много времени отнимает работа и дом. Чтобы им в этом помочь, разработали программу «Мобильный офис»,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наши врачи сами будут приезжать в островные города,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ервич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детей в Поронайске организована в здании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Надежда». Ее проводят врач-невролог и логопед-психолог. Также мобильная бригада оказывает родителям консультативную, правовую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ую помощь.

–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етей прямо на месте записывают на курс реабилитации в центре «Преодоление»,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учреждения Татьяна Егорова.

Вчера на приеме у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бывали 1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В числе первых, кто привел ребенка на диагностику, оказалась Татьяна Шадрина.

– Очень хорошо, что специалисты сами к нам приехали, ведь далеко не всегда у родителей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везти ребен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приеме мы получили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возможностях центра по дальнейшей реабилитации. Многие вопросы в итоге отпали, – поделилась Татьяна.

Отметим,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реодоление» активно применяет дистан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частности, у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онлайн-консультац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через личный кабинет.

##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появится приют для собак

О проблеме бродячих животных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рассказали на встреч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твердил, что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включен в программ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иютов.

– Этот вопрос стоит очень остро, ведь речь идет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людей и об ответственном отношении к животным.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появится восемь приютов. В районах необходимо определить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и в сжатые сроки прове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приют на 750 собак появится в селе Чехов. При выборе места обязательно учтут мнение жителей. Проектные изыска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о втором-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району на создание объекта выделят 1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риюты для бездомных животных должны построить в северной, центральной и южной частях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а Курил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ждого объекта обустроят помещения для временного и длитель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собак.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комнаты для ветеринаров, крытые вольеры и площадки для выгула. Здания будут иметь одноэтаж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 модульные и быстровозводимые. Всего в приютах смогут содержать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животных.

Кроме того, на встрече много внимания уделили вопросам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й сферы. К примеру, жильцы села Чехов рассказали губернатору о проблемах с углем. По их словам, в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поставляют топливо низкого качества. При этом из села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не вывозят угольный шлак.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разобраться с этими проблемами профильн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Срок – не более месяц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проверка по этим фактам проводится прокуратурой.

А холмчанин Сергей Зуев рассказал главе региона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ремонта двора и дома на улице Портовой, 12.

– Двор имеет соци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В нашем доме находится детский клуб «Маячок», рядом расположены детский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баня. Все ходят через наш двор. А в нем грязно, особенно – после дождей. В ремонте нуждается и сам дом – фасад, козырьки и крыша в плохом состоянии, – отметил мужчина.

О планах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холмчанину рассказали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Так,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ЖКХ ище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менить инженер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в этот межотоп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ом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 2022 году.

##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свежую рыбу получили жители 15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егионе расширяют географию продаж свежее 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прямых поставках с места вылова достигнуты с десятком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Число сахалинских волонтеров должно увеличиться до 35 тысяч человек к концу этого года

Достижение та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позволит нов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на 2021-2022 год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удут активнее вовлекать в волонтерские программы. Добровольцам окажут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 методическ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ую, ресурсную.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обучающие семинары и мастер-классы.

– Сахалинские волонтеры приходят на помощь во всех сфер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 в медицине и образовании,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е, экологии и ЖКХ.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та рег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наладить координацию работы в сфере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едомства не будут дублировать работу друг друга, что позволит эффективнее проводить работу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волонтеров,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ماعيل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олонтерский акти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асчитывает 27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2021 году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продолжае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движениям: МыВместе,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Под одной крышей добровольцев объединяют ресурсные центры. Такие уже работаю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Корсакове.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центры в Холмском, Тымовском и Томарин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Более 100 добровольцев в этом году будут помогат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ройти Всероссийскую перепись. Еще 118 волонтеров пройдут обучен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омфортная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поручений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Я специально инициировал опрос жителей в соцсетях, потому как ранее главы 7 районов уверили меня,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проблем с доступной свежей рыбой нет. В результате, около 70 процентов граждан слова мэров не подтвердили. Я доверяю мнению жителей: если люди говорят, рыбы нет, значит е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т. Это надо исправлять. Наша задача – закрыть потребности во всем регионе. Люди, живущие на островах, должны каждый день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употреблять свежую рыб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реализацию свежих уловов начали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айонов. Исключения пока составляют Охинский и Ногликский. Там продавать свежую рыбу будут в конце мая – начале июня, как только начнется промысел.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вопрос также должны решить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А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каждый четверг начали осуществлять бесплатную раздачу рыбы.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регионе реализовано более 45 тонн свежей охлажденной рыбы. Поставки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благодаря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между агентством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 рыбодобывающи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В проекте уже участвуют ООО «Прибой-Восток», ООО «Невод», ООО «Зюйд-Вест», ПКФ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к», РК «Островной», АО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я база сейнерного флота»,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ассвет», ООО «Алаид».

– Вступая в соглашения, предприятия не просто берут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редостави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рыбопродукцию,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требованиям, но и отпускают ее по определенной цене. К примеру, минтай и камбал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 не выше 5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треску – по 60 рублей,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 В итоговую стоимость для жителей, конечно, заложены минимально возможные затраты торг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розничная наценка и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Так, в рознице камбалу продают по цене от 55 до 80 рублей, минтай – от 50 до 90, треску – от 70 до 9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Рыба доставляется из портов и реализуется торговыми компаниями при актив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администрациями район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льготны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продолжают информировать о продаже свежее 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по телефону.

## На Сахалине с учас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ейчас прорабатываются варианты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построено новое комфортное общежитие.

– В цел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уденты университета переведены на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могло с размещением ребят в областных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Распорядился помочь университету возобновить очный формат учебы. Для этого формируем совместную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куда переезжают студенты и с какого числа выходят на пары.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сначала выйдут студенты первых и выпускных курсов, а потом, поэтапно, – все оставшиеся. Это временное решение.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ниверситет остро нуждается в комфортном, безопасном,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житии. Ведем переговоры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и,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тепенно возвращаться на очное обучение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начнут уже в апрел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бят задействуют общежит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техникумов и колледжей, соци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коммерческие гостиницы и hostels.

Отмет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ГУ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ариант о создании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Там планируется возвести три корпуса общей площадью 3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где смогли бы разместиться 1500 студент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이 모 저 모

## (2면의 계속)

음악 행사는 코르사코프, 흄스크, 노글리키, 유즈노쿠릴스 크의 아동예술학교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3호 김나지아 5개 행사장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세계 4개 국가와 160개 도시 들의 230개 행사장에서 개최됐다. 사할린에서 행사를 가장 먼 저 시작했는데 각 현지 시각12시에 다양한 난이도의 음악 시 람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 총 150여 명이 시험에 참가한 가운데 162개의 디딤트 중 약 100개의 답안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행사에 참가자들은 만족스럽고도 멋진 감흥을 만들준 유익하 고도 흥미로운 기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행사 주최 측과 주 학교밖 교육활동센터는 내년에 행 사 지역을 확대해 사할린 전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로 개최하 여 더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계 획할 예정이다.

### Сахалинцы написали музыкальный диктан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акция по проверке музыкаль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и музыкального слуха "Всеобщий музыкальный диктант" состоялась 11 апрел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первые приняла в ней участие. Праздник музыки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на пяти площадках: в детских школах искусств Корсакова, Холмска, Ноглик,

Южно-Курильска и в гимназии №3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на 230 площадках в 160 городах и 4 странах мира. Сахалинские площадки стартовали самыми первыми: в 12 часов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зазвучали мелодии диктантов разной сложности.

В целом участие приняли около 15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ми написано 162 диктанта, в том числе почти сотня работ — на отлично.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отметили, что это интересный и полезный проект, приносящий удовольствие и создающий прекрасное настроение.

Региональный организатор акции,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рассчитывае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расширить географию, организовать больше площадок по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ивлечь к диктанту больше людей, любящих музыку.

### 주 도서관의 전시회에서 유명 민속학자에 대해 알려준다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러시아의 과학과 기술의 해를 맞이하여 '사할린의 현대 연구자들' 순환 전시회가 계속 되고 있다. 두 번째 순환 전시회는 5명의 민속학자들을 주제로 하여 4월 12일에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미하일 프로코피예브, 추네르 탁사미, 타 치야나 로온 등 기타 유명 민속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들 모두 사할린주 북부 소수민족 원주민의 생활양식과 언어, 물질적, 정신적 문화와 구비 문화와 전통의 연구자들이다.

'현대 사할린 연구가' 순환 전시회는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의 향토학부가 주최했다.

이 기획은 지난 70년간 사할린주 연구에 크게 기여한 다양한 학술 분야의 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주 사명이다.

전람회는 6월 9일까지 일반 과학도서관 2층에서 열리며, 문의는 전화(+7 (4242) 45 25-38)로.

###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узнать об известных этнографах на выставке в библиотеке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одолжается цикл выставок "Современ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ахалина", приуроченных к Году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в России. Вторая экспози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пяти этнографам, начала работу 12 апреля.

Обновленная выставка расскажет об известных этнографах, среди которых Михаил Прокофьев, Чунер Таксами, Татьяна Роон и другие ученые. Все они — исследователи традиций, фольклора, материальной и духовн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ов и других сфер жизн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икл выставок "Современ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ахалина" организован отделом краеведения СахОУНБ. Проект призван рассказать об ученых из разных сфер научных знаний,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заметный вклад в изучени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 последние 70 лет.

Экспозиция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СахОУНБ и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9 июня.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525-38,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КОНЦЕРТЫ**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